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11월 27일(금)
--(윤력 10월 13일)--
Пятница
27 ноября 2020г.
№ 46 (116913)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19 도시 우수 소기업> 정기 콩쿠르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스타트>부문에서 개인 기업인 김 나탈리야가 우승했다. 그는 <야삼(내가 직접)>학령전센터 대표다. 2018년에 열린 이 센터는 주민들 가운데 인기가 많다. 2자녀의 어머니로서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탈리아에게는 어머니 날(올해 11월 29일 기념)을 앞두고 받은 이 상이 좋은 선물이 되었다고 한다.

(이예식 기자 촬영)

11월29일어머니날 기념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어머니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심히 돌봐주며,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가 소중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성들의 적잖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도 아주 중요한 어머니의 수고를 항상 존중합니다.

사할린주 정부는 사할린주의 자녀를 둔 가정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문제의 해결을 돕고, 의료 서비스와 양질의 교육을 보급하며, 스포츠와 창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좋은 성과가 있는 가운데 지역에는 다자녀 가정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모든 어머니 분들에게 진심으로 강건함과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라며, 가내에 자녀들이 형통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시길 기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주 정부 회의에서 제설작업, 사회적 상점, 의약품에 관하여 논의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각 지역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파가 닥치면서 사할린주의 지방과 마을, 시의 주거지 구역 및 차도와 인도의 빙판과 눈 제거를 위한 특별 조치를 과제로 삼았다. 이런 문제들은 주택공공사업부와 사할린 지역 대표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주지사는 주말에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순회 시찰 중 주택가에 거리 정돈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올라왔는데 주택가의 거리 정돈에 대한 요청이었다고 전했다.

어딘가는 얼음으로, 어딘가는 눈으로 덮여 있어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방지할 수 없으므로 공공서비스와 관리회사의 작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농업통상부 장관 인나 파블렌코는 지방자치체 지도자들에게 사회적 상점의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세심하게 알리기 위해 방송과 인터넷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이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식품 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주에는 스미르니흐,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마카로브, 오하 구역을 제외한

주내 모든 지역에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이 작업에 착수했다.

주지사는 사회적 상점에서 기초식품세트 가격은 다른 상점들보다 19% 저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웨로쿠릴스크 구역은 현재 기록적인 지표의 편차를 보이는 가운데 32% 저렴했다. 사할린 주민을 위한 기초식품세트 가격은 5천265 루블리다.

회의에서는 사할린 지역의 감염병 방지 대책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라 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가 이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사할린주 코로나19 감염으로 확진자는 총 1만400명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구매했다. 현재 일차적 약품들이 사할린 지역으로 들어와 지역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이 약품들은 코로나19 외래 환자 진료소를 위한 것이다. 보건부 장관은 한 달간 사용할 13만8천개의 중합 효소 연쇄반응(PCR) 테스트를 확보해 놓았다고 전했다. 사할린주는 앞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밝히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진단 테스트 키트를 1만 개를 구입해 연구소의 업무를 30% 줄였다.

현재 코로나19 검진 결과는 평균 2일 내로 나온다

고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단신

사할린주에 코로나19 약품 세트 공급

사할린 전 지역에 보급되는 일련의 코로나19 치료 약품이 자가 치료를 받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보급된다. 사할린주는 약품 확보를 위해 연방 예산으로부터 1800만 루블리를 받았다. 사할린주에 '아르비돌', '그립페로나', '파라체토몰라', '아지트로미치나' 등 2500세트의 약품이 공급되었다. 이 약품들은 자택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들에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엄격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모스크바, 한러 수교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

11월 26일 11시(모스크바 시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모스크바에서 국제 학술회가 열렸다. 학술회 주제

는 <한러 간 수교 및 전략적 협력과 구체화 과정에서 고려인과 민간 외교의 역할. 역사적 측면과 현재 정치적 실상>이다. 행사 주최측으로는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동양연구소,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연초부터 사할린주의 2,880가정이 출산자금 받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연초부터 출산자금을 받을 첫 아이를 낳는 여성의 연령 제한을 없앴다.

첫 아이를 낳는 여성 누구에게든 15만 루블리를 출산자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사회복지부 부장 엘레나 스테파노와가 말했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거주지의 사회지원센터로 가서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대책은 '주민통계학' 국민 기획의 일환으로 지역의 출산율을 높여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 설립 25주년

<에트노스>와 함께 걸어온 먼 길

한민족예술과 신 율리아 과장과의 인터뷰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의 한민족문화예술과가 설립된 지 25년이 되는 해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2011년부터 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러시아 공훈 교사 칭호 수여자인 **신 율리아 엔체로브나** (45세) 과장과의 <에트노스> 한민족학과 역사와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 우선 <에트노스>학교 한민족문화예술과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민족학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미 학교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하인사 고맙습니다. 사실 <에트노스>학교에 우연히 입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6년 전에 당시 사할린음악전문학교(현 사할린예술전문학교) 4학년생으로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에트노스>학교에 바란 교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친구와 함께 교사 시간표를 나누어 일하게 되었는데 첫 학생은 6명이었어요. 그 당시 <에트노스>학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은 사할린 음악전문학교 건물에서 한 것이 저에게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점이었죠. 이렇게 <에트노스>에 입사하고 6개월 후에는 추가로 6명의 학생을 더 맡게 되었죠. 이렇게 1년간 공부하면서 일했습니다. 1995년에 졸업장을 받고 학교 내 한민족학과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민족 예술학과 설립 제안을 김순남 선생(한민족학과 초대 과장)이 하였고 에이지노와 나탈리아 세묘노브나와 <에트노스>교장 선생이 이걸 실현시키셨어요.

- 학과를 처음 시작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 네, 맞아요. 아무 기반이 없었잖아요. 김순남 선생님이 에이지노와 교장 선생님과 가야금, 의상 등을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잘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다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교사들이었죠. 교장 선생님과 과장님의 정말 대단한 노력 덕분에 그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박정남·리수복 부부가 파견을 할 수 있었고 이곳 사할린에서도 인재를 찾아 설득하고 있었죠. 첫 한민족학과 선생으로 이정자(무용)씨와 체오(조) 나탈리아 아나톨리에브나가 계셨습니다.

체오 나탈리아 같은 경우 그 당시 사범전문학교를 금방 졸업하셨고 저는 한민족학과에서 처음엔 아코디언 교사로 활약했었습니다.

- 선생님께서 여러 번 악기 전공을 바꾸셨지요.

- 제가 처음 가야금을 본 순간 악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 악기를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에이지노와 선생은 물론, 기뻐하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체오 나탈리아 선생과 함께 조선공화국 강사로부터 가야금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우리 셋(이정자 선생님, 체오 나탈리아 선생님과 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2개월간 첫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먼 곳으로 가서 가야금 연주, 조선 무용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이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양에서 지낼 때 2개월간 손가락에 피가 터지도록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온 후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가야금 선생으로 첫 학생들을 맡겼어요. 놀라움에 빠진 저는 "제가 아직 배울 것도 많은데 가야금 선생을 하라니요..." "하자 에이지노와 선생님은 "괜찮다. 애들을 가르치면서 너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가야금에 대한 의욕이 좀 강했는데 악보도 거의 없었고, 교재도 많이 부족했고 인터넷도 그리 발달되지 않은 시기여서 머리를 많이 썼죠. 연습도 하고 직접 편곡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학교 지도부의 노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강사로 4분(두 부부)이 파견 오셨는데

이 선생님들이 우리가 학교가 발전하도록 엄청 많이 도우셨어요. 이분들이 4년간 사할린에 계셨거든요. 물론 그동안 선생들과 학생들은 기술을 많이 익혀 무용, 가야금, 보컬에는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2005년에는 한민족 전통 음악 연주자인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들이 처음으로 사할린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국악 아라리오>축제 출연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뜻밖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울 арти스트들은 사할린에 한민족예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 했고 우리는 남한 예술이 북조선 예술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남한 전통음악을 접하기 위해 5일간의 연수(가야금, 무용)를 바로 개최했습니다. 그때 처음 남한 가야금을 보게 되어 처음 연주해보았습니다. 이 악기는 북조선 가야금과 영 다릅니다. 성격, 스타일 등. 사실 기술을 많이 익혔는데 연주할 때 감동과 마음이 좀 부족하다 할까요. 그래서 민족 전통이 담긴 음악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 교수님 덕분에 서울예술대학 대학원에서 가야금 전공으로 2년 간 공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2007-2008년은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안 교장 선생님의 부탁으로 저는 동시에 장구 등, 전통 타악기를 익히게 했습니다. 당시 장구, 사물놀이를 가르치신 이정자 선생님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한민족 전통타악기 전공이 없어질까봐 학교 지도부 측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구를 2년간 배우는 동안 사실 많은 작품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무엇인지, 호흡이 중요하다는 걸 잘 깨달았습니다.

- 서울에서 공부한 후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에트노스>학교에 돌아온 후 '우리 학교에 맞는 자기만의 교수방법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제가 전통음악의 철학을 깨닫게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가야금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북조선 기술과 남한 연출법을 통합시키는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익혀보았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서울예술대 대학원에서 돌아온 후 제가 가르친 가야금 앙상블은 여러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유즈노사할린스크 음악대회에서 대상, 주 음악대회에서 금상, <모스크바 친구를 맞는다>축제 초대, 스피와코브 국제축제 초대 등. 가야금을 타는 여학생들은 한편 기술적 면에서 잘 발전하고 또 한편으로 독특한 스타일의 기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안타깝게도 제가 더 이상 가야금 선생으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전통 타악기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하나뿐인 이 과목 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타악기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 이 교육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도 프로그램, 교수법, 호흡 연습 규칙, 리듬 연습프로그램 등을 새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이를 발전시키려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 현 한민족예술과를 소개하자면요?

- 현재 우리 한민족과에서 5세부터 16-17세까지의 학생 약 140명이 공부하고 있고 한민족예술 교사 7명을 비롯해 음악이론 교사 등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아 교사와 학생들은 "에트노스는 우리 집이다."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한민족과는 25 주년을 맞이합니다. 먼 길을 걸어 정점에 도달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우리 학과를 관중들만 아니라 한국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국제 및 국내 수준의 경연대회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과 예술단들을 여러 진지한 고급 대회, 축제 등에 지속적으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영광<에트노스>학교 한민족과 학생팀은 2014소치 올림픽 문



화프로그램에 참가)입니다. 상은 정말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취한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개발하고, 시대에 발맞추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K-POP 보컬 부서를 개설 한 뒤 젊은이들이 K-POP 댄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시대를 따라 잡기 위해 새로운 것이 필요 합니다.

우리는 25 주년 공연을 <시간의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제목은 콘서트의 본질을 반영하고, 현대적인 형식에 전통적인 민속을 담아보았습니다. 21 세기에 민속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행사는 11 월 20 일에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내년 1 월 15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 월에도 이 공연을 보여주지 못하면 학기 말 (봄)에 개최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 선생님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아직 실현이 불가능한 꿈이 있긴 합니다. 사할린주 내 여러 도시에 우리 한민족학과 분교를 여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실현할 수 있겠는지는 지켜봐야겠죠. 또 하나 <에트노스> 식구의 꿈은 새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은 너무 작고, 제대로 된 공연실도 없고, 시설과 장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새 아이디어를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건물입니다.

- 모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에트노스>한민족과는 우리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큰 자랑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의 청소년들을 <큰 도전> 경연에 초대

<대도전> 전국 과학기술기획 경연 지역별 참가를 위한 신청서 접수가 11월1일부터 시작되었다. 지역별 단계에서는 7학년-11학년생과 중등전문교육기관의 1학년-2학년생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식은 개별 및 팀별로 이뤄진다.

경연 활동은 6개 주제별 - 농산업, 생명공학, 무인 운송과 물류 시스템, 신소재, 북극과 세계 해양개발, 현대 에너지, '스마트 도시'와 보안 - 로 진행된다.

발표 시 전시물이나 홍보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경연의 우수 기획은 연방 단계의 추가 심사를 거쳐야 하며 경연 참가를 위해 'https://online.sochisirius.ru/'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작성한 기획 작품을 올려해야 한다. 참가 신청서는 2021년 2월1일까지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제출된 기획작들을 사할린 과학연구소 및 협력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다.

지역 단계 결승전은 3월 말 실용과학 콘퍼런스 방식으로 조성된다.

경연 우승자는 최종전에도 출전하며 최종단계에서 잘 발표한 우수 참가자는 소치의 '시리우스' 교육센터에서 여름방학에 열리는 '대도전'과학기술 프로그램에 초청된다.

'대도전'은 과학적 연구활동을 하는 대학생과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행사로서 러시아 교육부 행사 목록에 포함돼 있다. **Юным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1 ноября нача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трек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школьники 7-11 классов и студенты 1 и 2 курсов средне-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участие как с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оектом, так и с коллективным. Работы на конкурс принимаются по шести темат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е и биотехнологии, беспилот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логистические системы,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освоение Арктики и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современная энергетика, "Умный город"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Во время защиты рекомендует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макеты или экспонаты. Проекты, ставшие лучшими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треке конкурса, подверга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перекрестной проверке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этап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конкурса, необходим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в системе "Сириус.Онлайн" и загрузить на эту платформу проектную работу.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треке можно до 1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работы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 эксперты,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ов Сахалина и компаний-партнеров. Финал регионального трека конкурса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марта в формат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бедител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Лучшие участники, проявившие себя на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этапе, приглашаются на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Большие вызовы" во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в Сочи на баз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ириус". (7면에 계속)

주제: 사할린 한인 문제

대한민국이 사할린한인을 세대로 나누는 일화적 원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할린동포 여러분!

연세 국어사전에는 세대를 '같은 시대에 살아서 나이도 서로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그 사람들.' 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동아 새국어 사전에는 세대를 '같은 시대에 살아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 약 30년을 한 구분으로 하는 연령층. 아버지,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대.' 라고 풀이되었습니다.

러시아 사전 (에스.이.오제고프) 에는 세대를 «Одновременно живущие люди близкого возраста.» «동시대에 사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세대를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손자로 이어지는 대라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세대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사할린한인의 세대를 정한다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분들은 사할린동포 1세, 그분들의 자녀들은 사할린동포 2세, 손자들은 사할린동포 3세로 정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유능한 공무원 및 관리들은 사할린한인의 세대를 1945 년 8 월 15 일 이전 출생자는 1세, 이후 출생자는 2세라고 결정했습니다(국적판정 1913.01.01.).

이러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의하면 사할린에서 1945년 8월 14일에 출생한 아이와 40-50 세 되는 아버지가 함께 1세대가 되고, 1-2일 차이로 1945년 8월 16일에 출생한 아이는 2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국제적으로 규탄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되는 똑똑하고 유능한 변호사 출신, 대법원 출신, 검사 및 경찰 출신 그리고 정치인으로 소집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2020년 4월 30일 사할린동포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만을 사할린동포라는 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유감스럽게도 나라가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타국인 사할린으로 끌려간 분들과 그 후손들을 일화적 원리로 1945년 8월 15일 이전 이후로 나누고, 사할린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인간적 이산가족이 계속 발생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할린동포법 정의에 의하면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 그럼 19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한 사할린동포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러시아 인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먹다 버린 청어대가리를 주어먹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답변도 설명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하면서 또 해결해야지요. 현재로 보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서 숙제로 남겨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5년 동안 연구하고 15만에 통과시킨 사할린동포지원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니 다시 숙제로 남겨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할린한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특별법이 15년 만에 통과되었는데 그 동안 수천 명의 사할린한인들이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숙제를 또다시 15년쯤 후에 해결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 총통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는 사할린한인들의 문제가 없기 위해 사할린한인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할린한인 2세 3세도 백발 된 노인들인데 더 이상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년 후에는 숙제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르면 "사할린에 남아있는 동포에게 조국이 있고 어려울 때 조국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라나는 3-4세대 애국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한-러 관계에 한국의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할린동포가 한국이 세우는 제한선에 걸려 한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면 사할린동포들의 가문에 조국과 연결되는 선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아들딸과 손자손녀에게 가까운 조국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의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사할린동포는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피줄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올바른 말씀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단 한 사람의 사할린한인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고 긴급히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후손들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에 '예산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패전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 명을 귀환시키고 사할린에서만 26만 4천 명의 모든 자국 국민인 일본인을 포함해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과 자녀 2,250명을 함께 귀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도 모든 가족, 자손 및 친척들도 귀국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지 8년이 지났는데 일본 정부의 눈치만보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함병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우리 강제동원 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7면에 계속)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쏟을 수 있다는 게 작가라는 직업의 장점이다. 게다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다음 책의 소재를 선정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작년에는 17세기에 범선을 타고 세계일주를 한 조선 소년의 이야기 『나는 바람이다1~11』을 마무리했다. 재미있는 작업이지만 작품 속 공간 배경이 지구 한 바퀴라 준비 과정이 꽤 고생스럽다.

역사이야기는 자료도서를 많이 읽어야 한다. 되도록 현장 취재를 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여기저기 취재도 다니는데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주인공이 느꼈을 환경을 직접 경험하면 스스로 쓰는 글에 믿음이 생긴다.

열한권짜리 책을 쓰는 칠 년 동안 일본에 두 번,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를 각각 다녀왔고 하와이와 멕시코 쿠바에도 다녀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멕시코다.

멕시코를 가기로 하고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현지 안내를 맡아주기로 한 멕시코 친구가 급하게 일정 변경을 요청해서 취소한 적이 있다.

폭력 조직과 지방 경찰이 결탁된 대학생 집단 살해 사건 때문에 취재지역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다는 게 이유였다. 그 사건 때문에 전국이 시위로 들쭉거린다는데 여행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알아볼

수록 부담감이 늘어났다.

멕시코 일정을 취소하니까 걱정하던 주위 사람들이 마음을 놓았다. 취재 때마다 가방 가득 사다주었던 현지 과자 선물을 기대했던 아이들만 실망할 뿐이었다.

그래도 달력을 보며 몇 달 뒤 다시 일정을 잡았다. 멕시코만의 베라크루즈에서 태평양의 아카폴코까지 중미 횡단을 하는 여정이었다. 현지 사정을 모를 때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중미 횡단을 계획했는데 가보니 자동차 횡단도 쉽지 않았다. 여행이라면 부담없이 포기하겠는데 작품을 위한 취재여서 사명감으로 밀어붙였다. 구상에서 집필까지 팔 년 정도 걸려 열한 권을 써내려 하는데 절반을 넘게 책이 나온 상황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작품 속 주인공은 작가에게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실제로 만나면 나한테 왜 이런 고생을 시켰냐며 항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작가도 할 말이 있다. 너는 혼자라고 느꼈겠지만 내가 늘 함께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다. 쓰고 보니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말투다.

신이 인간을 바라 볼 때 이런 마음일까?

광주에서 김남중



주제: 사할린 한인 문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저는 자주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사할린에 계실 때 고향 생각을 자주하시며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으셨으면, 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자주 밖으로 나가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어느새 많이 지나, 2007년 나는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여 참 반가웠습니다. 다만 자식들과 함께 영주귀국을 하지 못하고 이산가족이 또 다시 생겼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 살아보니 좋은 일도 많이 있어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는 천천히 만나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식들과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우리 자식들도 영주귀국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습니다.

2021년에 올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알아보니 62세가 되어야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고 하니 자식과 만나서 서로 같이 살아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들이 62세가 될 때면 나는 91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겠는지? 살 수 있으면 몇 년 더 살 수 있겠는

지?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한숨이 나한테 닥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식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모두 다같이 온 식솔이 만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언제 돌아오겠는지?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2021년부터 자식들도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결정을 했으면 그해부터 한국으로 귀국해야지요.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만일 내가 그때까지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영주귀국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단 한 자식만 영주귀국할 수 있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자식들은 자식들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한국으로 와서 부모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면 모두 다 올 수 있게 해야지요.

그것이 인간적인 원칙이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도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묻습니다. 참 대답하기도 어렵게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이라고 자식들에게 대답해야 하는지?...

옛날부터 한국에는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살아야하는 풍습도 있는데 말입니다.

한영준 (인천 남동구 논현동)영주귀국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Личность Катаяма Мичио, журналиста и фотографа из Японии (г. Осака), известна на Сахалине с 1990-х годов. Его персональные и групповые выставки не раз открыва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еях, а в 2019 году он передал в дар Сахалинскому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музею коллекцию традиционных японских кукол. Катаяма-сан – чуткий и внима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неравнодушный к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и и людям, проживающим на ней. Много лет занимался темо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он обратился к знакомым сахалинцам с просьбой найт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Узнав об этой истории, мы решили опубликовать письмо Катаяма-сана, которое дошло до нас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Хочу встретиться с Галей

Знаем ли мы о тех далеких военных событиях, которые происходили 75 лет назад в Китае, Корее,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В общих чертах, а за каждым военным событием судьбы тысяч людей. История жизни одной японской девочки раскрывает глубину трагичности войны и возможности сохранения тепл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оседями. Так мы смогли соприкоснуться с одним из аспектов войны, которой нет уже более 75 лет.

Девочка родила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рафутто в городе Сисука (ныне Поронайск), там и столкнулась с войной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Конечно, она не была на поле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Но даже в глазах девочки, проживавшей в приграничном городе Сисука с населением более 22 тысяч человек, война выглядела очень трагично.

Семья девочки, отец которой был сотрудником целлюлозно-бумажной компании Одзи Сейси, жил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зиденции Одзи Сейси в Сисуке. В хаосе войны люди совсем позабыли о человечности, однако эта девочка, пережившая вторжение советских солдат, сохранила веру в теплоту челове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благодаря новым соседям.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советские солдаты начали покидать территорию Карафутто, и вместо них на Сахалин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обычные гражданские (русские). Однажды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зиденции Одзи Сейси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семьей переехала жить русская девочка. Девочки оказались ровесницами и быстро подружились. Конечно, разговарив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им было очень сложно. Несмотря на трагическую историю войны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девочки, жившие в очень непростых условиях, вместе весел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Японскую девочку звали Сайто Норико, русскую же звали Галей (в японском варианте «Га-ря»). Га-ря была на год младше Норико. Норико посещала японскую школу, Га-ря – русскую. Каждый день девочки играли вместе.

Примерно через два года Норико вместе с матерью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в Японию.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на душе было радостно от того, что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но расставаться с Га-рей было очень грустно. На прощание Норико подарила Га-ре свою самую любимую куклу.

Прошло немало времени, когда тронувшаяся в путь из Поронайска на грузовой машине Норико обнаружила в своем кармане пакетик сахарного печенья, весьма дефицитного в то время. Это оказался подарок, сделанный от сердца, матерью Га-ри.

Прошло 75 лет, как окончилась война. Норико и Га-ря разлучились 73 года назад. Сегодня Норико 82 года, она здорова и живёт в префектуре Акита. И сегодня Норико продолжает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мечтая о встрече с Га-рей.

Может кто-то знает о Га-ре? Отзовитесь!

• Сайто Норико в августе 2020 года выпустила небольшую книгу. Она называется «Хочу встретиться с Га-Рей». И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в ней о жизни на Карафутто.

Катаяма Мицую
(Перевод: Пак Дарья, Бя Виктория)

От редакции: Надеемся, что история найдет отклик в сердцах читателей, свершится чудо, и героини с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Фото героини на 8-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Любовь и время

Мы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нашего известного писателя Александра Кана с 60-летием, с юбилеем, который корейцы называют хангаби. Мы с Александром делаем одно дело. Ибо журналистов и писателей объединяет все-таки одна цель – наш труд во благо духовности человека. К тому же в трудовой биографии Кана есть и работа в «Коре ильбо».

Сегодня Александр не только известный прозаик, эссеист, драматург, автор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х статей. Он – замечательный человек,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собеседник, тонко чувствующий происходящее в обществе события, воспринимающий эту жизнь как Богом дан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реализовать себя в любимом деле, занятии, которое доставляет ему истинное наслаждение. С ним беседовать легко, по причине того, что он работал много лет журналистом, знает, как расположить к себе собеседника, заинтересовать его в беседе. Поэтому на многие мои вопросы он отвечает наперед,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просить героя еще о чем-то более значимом для нас и поучительном. И еще. С ним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на одной волне, и хочется слушать его мысли, восхищаться их неординарностью и простотой одновременно. Емкое звание Писател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лександру Кану вбирает в себя ту многогранность личн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а, уника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о котором говорят – не от мира сего. И на самом деле, судьба писателя, рожденного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кончившего два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как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берега одной реки, института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электронной техники и Литератур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Горького) и осевшего в Алматы – в городе, где «комфортно писать, уютно жить, где душа отдыхает», выглядит, согласитесь, неординарно.

Александр Кан в представлении не нуждается. Он – автор книг прозы «Век Семьи» (1993), «Сны Нерожденных» (1994), «Невидимый Остров» (2001), «Происхождение Призрака» (2002), «Обретенный Шаман» (2003), «Треугольная Земля» (2005), «Голем Убывающей Луны» (2010), «Книга Белого Дня» (2011), «Родина» (2015) и других. Победи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ых литературных конкурсов в Москве (лучшая повесть, 1993), в Берлине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1999), в Сеуле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2002), Анн-Арборе (лучшее эссе, 2006), Беркли (лучшее эссе, 2013), участвуя в конкурсе н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полнометраж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инофильма, был удостоен Гран-при з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Дым», который оценили в Сеуле, международную премию получил он и за лучший сценарий «Другое небо». Этот год стал для писателя очень плодотворным, благодаря представительным на суд читателя эссе, размещенным на сайте Вла-



дислава Хана «Корё сарам» (как говорится, еще горячими!). Сам писатель назвал цикл «Юбилейным». В него вошли та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как «Расстояния», «О Големах и Героях». Совсем недавно там же было размещено эссе – «Любовь и время».

Накануне юбилея мы связались с Александром и он охотно согласился поговорить на самые разные темы. Тем более, что к нему обратилась, как он сказал, его родная газета.

ВРЕМЯ СОБИРАТЬ КАМНИ?

– У меня созда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Вы из тех писателей, кто как-то и не пострадал от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Ездите, общаетесь, ника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ризисов. Это так?

– В творческом плане в моей жизни, наоборот, это время позволило углубиться в себя, больше работат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лодотворным был год,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этому 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меры на меня никак не повлияли, не было депрессий, о которых любят говорить люди творческих профессий. Но, если говорить в целом о жизни, то для меня этот год был очень не простым.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ереболели мои знакомые, и у матушки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То, что пережили за эти месяцы уходящего года люди со всего мира, коснулось и меня. Та же растерянность летом, когда даже врачи не знали, как справиться с вирусом, те же тревоги за здоровье родных. Но и ограничения в общении я остро ощущаю на себе. Дочь не смогла сюда приехать, она живет за границей, и я по ней очень скучаю.

– Надеюсь, что все будет хорошо. Все будет преодолимо.

– Я тоже очень верю в это.

– Александр, как известно, 60 лет для корейцев – цифра значительная. Не знаю, что она означает по иероглифам, но если перевести смысл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это что-то вроде «время собирать камни». А для Вас? Каковы Ваши ощущения возраста?

– К сожалению, по названным выше причинам, я в этом году не смогу собрать за одним столом всех моих родных людей, друзей, как того требует древняя традиция. И это грустно, конечно. Буду праздновать свой юбилей как законопослушный гражданин в карантин –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Но я не переживаю.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всегда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ыразить себя в своих текстах. Вообще, для писателя 60 – возраст зрелости. Время собирать камни еще не пришло, а вот подвести кое-какие итоги я могу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 итог даже не в количестве написанного, а во внутреннем состоянии меня как писателя. За всю свою творческую жизнь я всегда много работал, добивался поставленной задачи. И главное – не предавал ее величества Литературы. Я верен ей и по сей день, и никакие зем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как оправдываются некоторые, не заставили бросить этого дела, которому я безоглядно предан. В общем, себя в свои 60 я чувствую человеком, полным творческих сил, который еще создаст м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напишет, например, новый роман, новые эссе.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Фильм «Минари» получил две награды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Денвере

Фильм «Минари» режиссёра Ли Исаака Чона получил две награды на Денверск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и приз за лучшую мужскую роль. Как сообщила во вторник компания-дистрибьютор Panoplia, она присуждена американскому актёру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Стивену Юну. Сюжет фильма «Минари» основан на истории жизни самого режиссёра, ро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в 8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переехали в штат Арканзас и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В январе фильм получил приз за режиссуру и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независимого кино Сандэнс, в октябре –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и приз Союза актёров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Миддлбурге,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я Heartland. Фильм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Р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KBS World

Группа BTS номинарована на премию Grammy

Участники группы BTS стали первыми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сполнителей номинантами на премию Grammy. Их имена оказались в списке номинантов, объявленных Национальной академией искусства и науки звукозаписи США 24 ноября. BTS претендует на премию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ее поп-исполнение дуэтом/группой», присуждаемую за уникальны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достижения. Премия не входит в так называемую «Большую четвёрку», тем не менее, это высокий результат, учитывая, что ни один из певцов из Азии до сих пор не был на ней номинирован. Группа BTS удостоилась столь высокой чести благодаря синглу Dynamite, релиз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ся 21 августа 2020 года. 63-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Grammy состоится 31 января 2021 года.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ужно решать путём переговоров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нужно реш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путём переговоров.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ыступая во вторник в Кремле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новый посол КНДР в России Син Хон Чхоль. Росси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отметил, что Москва выступает з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связей с Пхеньяном и готова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всего спектра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тмечалось 75-лет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правления. «За её свободу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плечом к плечу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триотами сражались воины Красной армии», - добавил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сол Син Хон Чхоль прибыл в Москву ещё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но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верительных грамот ранее не проводилась из-за пандемии COVID-19

КНДР увеличила импорт медикаментов из России

Как сообщила в понедельник американска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о ссылкой на российские таможенные органы, в период с июля по сентябрь КНДР импортировала из России медикаменты на сумму 1.968.428 долларов. Это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превышает показатель того же периода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величение закупок медикаментов в условиях закрытия границ связано с растущим спросом на них,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тест-наборы для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я COVID-19. 59,8%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импорта из России в третьем квартале составила доля зерна, 14,8% - медикаменты, 5,9% -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котельных.

В школах РК начнётся преподавани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будет введён в 2021 году в качестве нового предмета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тарших школах. К 2025 году данный предмет появится в учебных программа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План обуче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обсуждался на совещании министров социального блок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ятницу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Ю Ын Хэ.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олитики РК, учитывая быстрый прогресс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фоне пандемии COVID-19. До начала преподавания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все школы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необходимыми учеб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их садов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пеци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обучения в игровой форме.

Поездки в Пханмунчжом продолжатся, несмотря на усиление режима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рограмма поездок в пограничны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продолжит действовать, несмотря на усиление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Об этом 24 ноября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Посещения объединённой зон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ругих объектов в пределах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возобновились в начале ноября, после более чем годовой приостановки из-за вспышки африканской чумы свиней. Между тем, в рамках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мер против COVID-19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туристов уменьшено вдво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дальнейшем ужесточении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нет, поскольку большинство объектов посещения находятся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доба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грамма поездок будет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если будет введён третий,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о пятиуровневой шкале.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второ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начиная с 24 ноябр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РК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второ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Это третья ступень пятиуровневой шкалы. Ужесточение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вызвано резким ростом числ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Объекты особого риска, в том числе, ночные клубы, должны приостановить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Рестораны могут обслуживать посетителей только до 21 часа, после чего они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авынос или осуществлять доставку. Закрытые спортивные сооружения, такие как тренажёрные и бильярдные залы, тоже должны прекращать работу в 21 час. После 22 часов количество городских автобусов и поездов метрополитена сокращается на 20% от обычного уровня,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передвижение людей. Посещаемость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не должна превышать одной трети, а старших школ – двух третей списочного состава учащихся. Жителям столичного региона рекомендовано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избегать посещения мест скопления людей.

(RKI)

Любовь и врем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 Сами строки Вашей биографии просто интригующие. «Александр Кан родился в 1960 году в Пхеньяне. Окончил Республиканскую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ую школу в Алма-Ате, затем – Московский институт электронной техники и Литературный институт им. Горького в Москве...». Какие края Вы любите Родиной?

– Конечно, для меня дорога Корея, город Пхеньян, ведь это место моего рождения, земля моих предков. И мне дорога Россия – место, где я получил хоро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начал писать. И, конечно, я очень люблю Казахстан и Алматы,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мне комфортно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Родина для писателя – это место, где ему хорошо пишется.

У КАЖДОГО СВОИ ЧАСЫ, У КАЖДОГО – СВОЕ ВРЕМЯ

– «...А 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споминал Часовщика, который 30 лет тому назад установил во мне часы, уже мои часы, которые начали тикать, неотступно отсчитывая новое время, уже мое время, в котором я начинал строить свой новый оригинальный мир. И не веря больше в прежнее мироустройство, я строил его как выход, как исход, как счастье, как судьбу, как свое самое главное откровение, и потому упорно, со страстью и вдохновением, несмотря ни на что, и вопреки всему». Эти строки из Вашего «Часовщика». Интересно, какое время сейчас на Ваших часах? Диктует ли оно Вам жизнь по определенным правилам?

– Это эссе о том, что у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есть свое внутреннее время. Это не то время, которое требует от тебя семья, служба, начальник, жизненные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каждодневный быт и так далее. Внутреннее время образует смысл и существо твоей жизни. Мое время – тесно переплетено с моим сочинительством, с моим творчеством. В эссе «Любовь и время», которое я написал этим летом, я как раз говорю о любви к творчеству. О том, что все проходит, а эта любовь никогда не угасает.

– «...И вдруг я увидел, что значу что-то для другого человека и что он счастлив только от того, что я рядом с ним. Такие слова сами по себе звучат очень просто, но когда вдумаешься в них, начинаешь понимать, как это все бесконечно важно. Это может поднять бурю в душе человека и совершенно преобразить его. Это любовь и все-таки нечто другое. Что-то такое, ради чего стоит жить». По фейсбуку, где мы с Вами друзья, знаю, любите Ремарка. Интересно, а для Вас существует сегодня не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 то, ради чего и дальше стоит писать?

– Очевидно, это судьба моей дочери. Моя дочь – художница, человек творческий, уже нашедший свою дорогу, свое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свою цель. Сделать ее семейным человеком мы, родители, к сожалению, не смогли. Но я привил ей интерес к искусству. Надеюсь, все у нее получится. И в трудный момент в жизни ее спасет именно ее творчество. Я в этом уверен, зная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опыту.

– Говорят, иногда нужно просто взять паузу и прожить наедине со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Вы следуйте этому правилу? Много ли Вы помните подобных пауз из своей жизни, в своей творческой биографии?

– Затянувшихся пауз у меня в жизни не было. Если не писал какое-то время, то во мне всегда шла внутренняя работа, которая бывает гораздо тяжелее того периода, когда 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ишу. Ну и конечно, надо иногда просто отдыхать, мы же не пишущие машины. Невозможно быть в постоянном напряжении.

МОИ МЫСЛИ – ПОЙМАННАЯ НА ЛЕТУ ПТИЦА

– Берегите в себе Человека, говорил в свое время Чехов. У Вас в фейсбуке этот чеховский девиз в числе ключевых фраз. Удалось ли? Удастся ли сберець в себе Человека?

– Я был мягким юношей до такой степени, что не всегда умел дать отпор, сказать «нет». Литература как раз научила меня твердости. Благодаря ей я научился уходить от суеты, от людей-пожирателей моего времени, которые просто сотрясали пустоту. Я научился говорить прямо, что я думаю о том или ином человеке. И, конечно, за мою прямолинейность меня многие недолюбливают...

– Но это ведь совсем не по-корейски!

– Вероятно, но миндальничать не в моих правилах. Мог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всем не по-корейски быть очень категоричным и на назойливость и глупость ответить прямо, без обиняков. И этому опять же научила литература, разглядила меня, сделала лучше, чище, честнее, прежде всего перед самим собой.

– В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 типичный кореец. Ведь у корейцев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се-таки семья, а потом все, что к ней прилагается...

– Я очень хорошо отношусь к семье, к ее вековому укладу. Женщин обожаю и восхищаюсь их красотой, силой их характеров, волей. Они способны все

подчинить некоей цели, которая в итоге выльется в нечто позитивное. Любая женщин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прочих данных, от природы сильнее, чем мужчина. Она увереннее в своих силах,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способна дать жизнь новому человеку. А мужчине остается либо служить женщине, либо творить что-то свое. Я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мои дети – это м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Они никогда не предадут, не изменят. И к писательству я так же отношусь. Твоя работа всегда с тобой, твое дело будет служить тебе верно. Главное, сам его не предавай, не променяй на то, что пусть соблазнительно, но временно, бренно. Это я, конечно, говорю о материальном достатке, что многие сегодня ставят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Поверьте, деньги нужны для жизни, для высоких целей, а совсем не наоборот.

– Вы помните свое самое перв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 Рассказ «Правила игры». В нем выражено все мое осколочное мироощущение. Суть ребенка, тем более мальчика, это отец.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его наличие. Я не помнил своего отца, так как в годовалом возрасте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будущего был вывезен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где и остался мой отец, образцовый гражданин своей страны, и привезен моей матерью, советской кореянкой, сначала в Ленинград, а потом в Алма-Ату. От отца только и осталась что пожелтевшая фотография...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мои бабушка и дедушка по матери бы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ы. Всем этим разрываю и осколком я попытался придать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форму в этом рассказе.

– Сегодня не просто выживать писателям, и время самой читающей страны прошло. Как Вам живется в таком мире?

– Да, иногда чувствуешь себя... големом,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для денег приходилось рекламировать сантехнику, писать пиар-тексты или сериалы с глупыми сюжетными линиями, чтобы заработать на жизнь. Но меня опять же спасало чистое творчество, в моем случае – панацея от всех бед.

– И все-так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у некоторых может создаться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Александр ведет некую затворническую жизнь, Вы человек современный и открытый, активны в соцсетях.

– Да, соцсети я опять же использую дл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и познавательной цели. Иначе мне было бы просто неинтересно ими пользоваться! Я часто цитирую писателей, художников, кинорежиссеров, чье творчество вызывает во мне восторг! И щедро делюсь этой радостью со своими друзьями, например, в фейсбуке.

– Мне всегда интересно было услышать о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писателей совет для начинающих авторов и узнать Ваше личное мнение для тех, кто уже состоялся и пишет. Александр, можно ли научить человека писать или все-таки нужны способности?

– Просто научить писать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можно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 хочет этим заниматься, если у него есть мотивация. Но если он не посвящен в некую тайну творчества, душу твою его строки не тронут. Почему одни строки душу бередают, а другие нет? Это всегда тайна!

– Александр, Вы к 60-ти годам находитесь в хорошей физической форме. Что для этого делаете? Все чаще многие люди, сохраняющие энергию и любовь к жизни и в пожилые годы, говорят, что нужно и мозги и душу тренировать, а не только свое тело, и наоборот. Что Вы делает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быть в форме?

– Поскольку ты по многу часов сидишь и пишешь,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нужно двигаться. Раньше я 5-километровые пробежки по утрам себе устраивал, сейчас больше хожу пешком, на выходные выбираюсь в горы. И вот когда ты идешь, бежишь, к тебе вдруг приходит новый образ, тема, идея, литературный замысел... Это просто здорово!

– А как с вредными привычками, присущими творческим людям?

– Признаюсь, в молодости я много пил и гулял. А сейчас я даже не курю, бросил – причем очень просто. Курил больше 30-ти лет. Помогли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Был в жизни у меня такой период, когда приходилось выбирать, что купить – пачку сигарет или батон хлеба... Вот с тех пор и не курю.

– Спасибо Вам, Александр, и за мудрые мысли, и за Ваш большой труд во благо диаспоры, за ценные советы, которые Вы дали, даже не заметив этого!

– Пожалуйста! Здоровья Вам и Вашим близким! Я очень ценю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как лично с вами, так и с родной газетой.

– Спасибо! И Вам здоровья! Пусть на ваших внутренних часах будет только радующее Вашу душу время! Будем ждать от Вас нов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Знаю, что читательские ожидания вдохновляют писателей!

–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всегда окрыляет и вдохновляет. Да будет так!

Тамара ТИН (газета "Коре Ильбо")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доставили партию лекарств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репараты будут бесплатно выдавать жителям, которые лечатся от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 дому. Их направят во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рганизовать прямые поставки медикаментов от завода-изготовителя на острова поручил минздраву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ле сигналов, поступивших от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Лекарства приобретены на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на эти цели 18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на остров привезли более 25 тысяч упаковок арбидола, гриппферона, парацетомола и азитромицина. Отгрузка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отправки в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чалась 24 ноября со склада аптечной сети «Фармация».

– Лекарства будут выдаваться строго по назначению врача амбулаторным пациентам, которые проходят лечение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на дому,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 Решаем и вопросы доставки – кроме медработников в этом процессе будут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олонтеры. Они смогут приносить лекарство на дом людям, которые обязаны соблюдать противозидемический режим и находиться в самоизоля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инздраве добавили, что такая адресная доставка поможет решить вопрос с обеспечением больных необходимыми препаратами в условиях повышенного спроса на них в аптеках. Все 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поступил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напрямую от производителя, без каких-либо посредников.

– Партия арбидола составляет 10 тысяч пачек.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с поставщиком о приобретении еще такого же количества. Следующая поставка ожидается в конце недели, – уточнила директор ГУ ОТП «Фармация» Инна Гребенева. – Парацетомола получили 5 тысяч упаковок, азитромицина – 6 тысяч, гриппферона – более 4 тысяч.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же началась поставка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больных коронавирусом из аптечных резервов.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фармацевты продолжают наблюдать повышенный спрос и просят жителей не покупать лекарства впро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аптечной сети имеется достаточный запас средств противовирусной терапии – ингавирина, кагоцела, виферона и других препаратов для леч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вернут производство крафтовых сыров

Мария Федотов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ниц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мерена в полтора-два раза увеличить выпуск уникальной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дукции. Для этого, считает она,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не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е мощности на новую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лощадку, которая создаетс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Более трех лет назад Мария решила превратить хобби – изготовление мягких сыров – в бизнес.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ась в качеств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арендовала помещение, закупила сырье, набор специа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приступила к работе. Дело пошло на лад не сразу. Надо было отработать технологию, найти покупателей. Сред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казалось немало ценителей вкуса и аромата крафтовых сыров. Так называют продукцию, которую вручную изготавливают небольшие фермерск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частные сыроварни.

Спрос на продукцию Марии Федотовой стал быстро расти. Сегодня сыроварня в день перерабатывает 250 литров свежего козьего или коровьего молока, закупленного у местных фермеров. Выход – 20-25 килограммов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В ассортименте – около 60 видов твердых и мягких сыров, сыры с белой и голубой плесенью.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ред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тало модным везти в подарок друзьям на материке не только икру или крабов, но и изделия из молока.

– Выпуск сыра – показатель того, что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развивается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которое дает качественное молоко, внедряется глубокая переработка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растет культура производства,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 Важно также, что пищевики не только вносят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о и расширяют ассортимент.

В дальнейшем производство сыров будет развернуто на баз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поруч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ы формируем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лощадку,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 Резиденты агропарка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офисными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помещениями, отвечающими всем санитарным требованиям. Также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будет возведен мультитемпературный складской комплекс, лаборатория и торгово-выставочный центр. Здесь будут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наша пищев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произ-

водила вкусные и качественные продукты для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Сейчас наши сыры вызревают только в четырех небольших камерах, в которых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заданный уровень температуры и влажности, – рассказала Мария Федотова. – Две из них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твердых сыров, которым требуется больше времени. Поэтому мы пока не можем увелич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площадке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можно будет установить несколько более объемных камер. Тогда мы могли бы летом готовить и закладывать в камеры для созревания больше твердых сыров. А в холодное время года выпускать мягкие сыры. Это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более ритмичным, и в итоге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выпуска продукции в полтора-два раза.

Резиденты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с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различными льготами, в том числе и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23 но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ртовал VI Национальный чемпиона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Абилимпикс»

Участие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34 конкурсант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это специалисты, студенты и школьники, имеющие ограничен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здоровья. Впервые из-за санитар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очно-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на базе средн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Эксперты оценивают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как удаленно – с помощью средств визу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так и на местах.

23 ноября за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для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компетенциям: «Кондитерское дело», «Поварское дело», «Малярное дело», «Ландшафтный дизайн», «Документацио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управления и архивоведение», «Столярное дело», «Вязание спицами».

– Участ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чемпионате – это первый шаг к воплощению своей мечты. Убежден, что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конкурсанты смогут ярко проявить себя,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стремления и таланты, обретут опыт,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уверенно идти вперед, добиваться намеченных целей, а лучшие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щищать честь стран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 приветствовал участников чемпионат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Юшук.

Самому молодому участнику Национального этапа соревнований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4 лет, самому взрослому – 49.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регион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за 4 года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на островах воз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увеличилось число компетенций, что расширяет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и личностного роста.

– С 2016 года область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е в Национальных чемпионатах. И ежегодно наши конкурсанты показывают достойные результаты, преумножая свои победы. В этом году Национальный этап впервые проходит в очно-дистанционном формате. Давайте поддержим наших участников. Внимание близких, наставников поможет им справиться с волнением и достойно выступить в состязаниях, – добави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В 2016 и 2017 годах в копилке сборной Сахалина было по 1 бронзовой медали, в 2018 году – одна золотая, две серебряные и две бронзовые. В 2019 году – 7 медалей: золото, по три бронзы и серебра.

24 ноября участники показа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умения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вышиванию», «Вязанию крючком», «Бисероплетению»,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25 ноября прошли старты по «Администрированию баз данных» и «Гончарному делу». 26 ноября к участию в чемпионате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швеи и портные. Всего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о 22 компетенции. Финал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до 29 ноября.

В рамках чемпионата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роведение и деловой программы.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обменяться полезным опытом, предложить свои наработки в сфере внедрения инклюзивных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сесторонней интеграции инвалидов в общество, эффективной реализации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оциа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Промысловые 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а начал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ежую рыбу

В минувшие пятниц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продажа свежельовленной и охлажденной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развернулась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Вблизи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Янтарь» на улице Пограничной сахалинцы приобрели около 800 килограммов камбалы, минтая и трески. Ранее област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договорилось с промысловыми компаниями региона о реализации рыбы по минимальной цене.

Так, в пятницу (20 ноября) жителям предложили камбалу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 белобрюхую, желтобрюхую и палтусовидную.

– Я прочитала в интернете о планируемой продаже и специально пришла сюда, чтобы свежей рыбки купить,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Татьяна Иванова. – Цена очень хорошая, куплю килограммов пять точно.

Рыбу, выловленную в Татарском проливе, доставили на продажу напрямую из Невельска. Место для реали-

зации продукци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оставила компании бесплатно. В итоге на её конечную стоимость повлияли лишь розничная наценка и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Килограмм продукта –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ида рыбы – обошелся островитянам всего в 65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отпускная цена предприятия составила 49,5 рублей. Объем поставки – 500 килограммов.

– На этой неделе мы снова планируем отпустить рыбу для продаж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Холмске. Все зависит только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и улова,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ОО «Прибой-Восток» Павел Николаенко.

Кроме того, накануне в этой торговой точке было продано еще 300 килограммов свежей рыбы, которую добыла компания ООО «Зюйд-Вест». Сахалинцы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камбалу, минтай и треску. Цена для покупателей составила 65, 75 и 90 рублей за килограмм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 Мы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наладить системную реализацию охлажденной свежельовл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 минимальной цене. Чтобы жители планировали свои покупки и точно знали, где и когда будет продаваться недорогая рыба. Все, конечно, зависит от сезона и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раслевого агентства Иван Радченко.

Напомним, региональн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ведет системный мониторинг, чтобы информ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 минимальных отпускных ценах на рыбу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а также поставщиках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Размещенная на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ведомства (Инстаграм https://www.instagram.com/agent_ribalka65/,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ok.ru/group55304504213754>, Вконтакте https://vk.com/agent_ribalka65, Фэйсбук <https://www.facebook.com/agentribalka65/>) информац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рыбадобывающи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 обновляется ежедневно.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указаны адреса точек продаж, номера телефонов и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компан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дукт «Доступная рыба». Сейчас в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67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264 компани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а также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ООО «Промхолод».

Плановая тренировка по экстренной эвакуации прошла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Учения провели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Их совмест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ники комплекса и специалис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МЧС России имени В.А. Полякова.

Подобные плановые тренировки на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проводятся ежегодно в преддверии зимнего сезона. Это важно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посетителей – отработываютс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действия на случай нештатной ситуации.

– Для нас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всегда – на первом плане.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имеет систему комплексной защиты от разного рода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й, обеспечена датчиками и уловителями на опорах. В случае неисправности, сигнал мгновенно поступает оператору на компьютер, а для связи с людьми предусмотрена система оповещения,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о эксплуатации горнолыжных трасс комплекса Никита Буланенко. –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итуаций, требующих эвакуации людей, у нас пока не возникало, мы должны быть готовы к этому. Потому такие учения проводятся регулярно.

Отметим, что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обеспечена многоуровневой системой питания. Поэтому в случае отключения основного источника,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ключается резервный дизель-генератор. Если же выходит из строя и он, то включается резервный привод, который приводит в движение канатную дорогу (со скоростью 1 м/с). И только если из строя вышел и этот механиз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бегнуть к крайней мере – проведению спас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Учения начались с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земле. Спасательное звено состояло из двух человек, где один поднимался наверх, а второй страховал. Руководил операцией спаса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ласса, начальник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4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имени Полякова Альгис Мейжис.

– В случае остановки движения, не стоит кричать, раскисать кабинку или поддаваться панике – это усложнит процесс эвакуации, – напомнил он о поведении во время нештатной ситуации. – Спасательная операция начинается с верхней части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Специалист поднимается на опору, организывает страховку и затем спускается до ближайшей кабинки, откуда ведет эвакуацию людей. Приблизительное время на эвакуацию 3-4 кабинок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30 минут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личества человек внутри.

Плановые учения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проводятся дважды в год и являются обязательным условием для надежной работы комплекса.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комплекса провели плановые регламентные рабо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его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в зимнем сезоне.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주제: 사할린한인문제

대한민국이 사할린한인을 세대로 나누는 일화적 원리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할린동포 여러분!

(3면의 계속)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우리 정부가 당연히 이런 판결을 기초로 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배상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이 이유로 매우 소극적입니다.

사할린한인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 1965년에는 소련 러시아 사할린에 거주 하고 있었기에 한일협정청구권과 무관합니다.

이 협정에 의해 양국 정부 간에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받아서 포스코를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소양강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발전소를 건설하여 산업화 종잣돈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였으면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생긴 돈으로 나라를 발전시켜 잘 살게 되니 값을 모르고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까?

한일협정청구권과 무관한 사할린 우편자금의 조속한 반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10위 경제 국가이고 수많은 후진국들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3만 여 명이 되는 사할린한인을 외면해왔으며, 계속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현자들은 '나라의 과거, 국민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강제이주 1세들, 2세들도 수명을 다해 세상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할린한인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루어서도 안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할린한인 문제를 해결할 때 정부,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은 형식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 대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할 수 있었으며 우리 대신 그분들이 사할린에 강제로 억류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사할린한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사할린한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국제적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1945년에 사할린에서 아이들과 임신부를 포함한 수십 명 한인들이 일본인들로부터 학살 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다음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75년 이상을 사할린한인들의 귀환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수천 명이 그리운 고향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형제, 부인과 자식들도 만나보지 못하고 타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물조차 얼어붙는 낮은 사할린에서, 고향가기 전에는, 고향땅 밟기 전에는 눈 못감겠다 고 다짐하시던, 살아서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가 봤으면 하며, 고향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시며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프고 대한민국 정부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사실은 국민에 대한 대량학살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 같은 핏줄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살아남은 사할린한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왜 같은 피를 가진 사할린한인들을 외면해왔으며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할린한인들에게 사죄하고 국제적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백성을 챙기지 않는 것이 무슨 국가입니까?

사할린으로 강제로 끌려갈 때에는 나라가 없어서 그리 되었고, 조국이 해방되어도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킬 수 없었다고 침시다. 하지만 지금은 뭘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여러 후진국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큰 소리를 치는 정도가 아닙니까?

집에서는 부모형제도 모르는 체하는 주제에 나가서는 남을 돕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불효자들의 행태와 무엇이 다를니까?

국가가 힘이 없고, 국가 지도자들이 무능하

고 책임감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강제징용을 당해 피해를 당했으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정부가 당연히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사할린한인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할린한인들의 고령화 및 사망률이 상승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이제 정부와 더불어 국민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권 상실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망국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가진 강제동원 피해의 상처와 분노가 사할린한인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국가가 국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핏줄을 가진 우리 사할린동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는 대한민국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5

**모스크바 사할린한인연합회 명예회장
김포시 사할린동포회 명예회장
박노영.**

**주소: 김포시통진읍조강로 36번길 39 서
암주공아파트 103동 102호
E-Mail: khimpark@mail.ru**

**Skype: vlakonst
사할린 동포
이채인 (이정원).**

**주소: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볼
니초나야 거리,2번 10동 105호
E-mail: skh.pyramida@gmail.com**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Большие вызовы" — это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и студентов, занимающихс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нкурс включен в проект перечня мероприят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организатор мероприятия.

사할린, 여행자들에게 6일간의 여행 제공

'모스크바에서의 극동의 날들'의 일환으로 '대규모 극동 온라인 도전'이 시작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극동 8개 지역으로 가는 여행권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사할린, 마가단, 아무르주, 사하공화국(아쿠치야), 부랴치야, 자바이칼과 하바롭스크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이다.

사할린은 6일간 2인용 여행권 이용자들에게 '섬들의 보물'의 여행을 추천했다.

도전 행사의 우승자는 일본이 설계한 국내 유일한 도시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를 구경하고 아늑한 도심의 명소들을 돌아보게 된다.

여행자들은 스노우모빌을 타고 벨리칸곶으로 가서, 스키를 타고 '고르니보즈두흐' 슬로프에서 스키장으로 하강, 사할린의 독특한 겨울 낚시도 맛볼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 극동의 날들'행사는 소규모 지역의 관광 및 투자 잠재력 개발뿐 아니라 극동지역에서의 근로와 학업을 위해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매해 개최된다.

이 활동은 이미 극동 관광산업의 발전을 새로이 촉진시켰고 러시아 지역의 여행 잠재력을 열어주었으며 많은 도전 참가자들에게 자국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었다.

Сахалин предлагает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шестидневный тур

В рамках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стартовал "Больш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онлайн-квест". Его участники могут выиграть путевки в восемь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Это Сахалинская, Магаданская,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Бурятия, Забайкальский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я, а также Чукотк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едложила путешественни-

кам шестидневный тур на двух человек "Остров сокровищ". Победитель квеста совершит экскурсию по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единственному городу в нашей стране, спроектированному японцами, и познакомится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уютно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Также гости смогут отправиться на снегоходах к мысу Великан, на горных лыжах спуститься со склонов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и на практике узнать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зимней рыбалки на Сахалине.

Фестиваль "Дн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 это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развит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макрорегиона,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для учебы и работ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кция уже дала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индустрии туризма, раскрыла потенциал путешествий по России, помогла многим участникам квеста по-новому взглянуть на свою страну.

기술종목 스포츠학교, 네 개 종목에서 학생들 모집

기술종목 스포츠학교에서 다음 네 개의 스포츠 종목 부문-모형비행기 스포츠 (10세-12세 남녀), 승마(10세-12세 남녀), 오토바이(9세-11세남녀), 사격 실습(11세-13세)-을 개설하여 11월16일 - 12월17일까지 스포츠학교 홈페이지 '스포츠' 항목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전화 문의는8(4242) 45-80-25로 하고 105또는 110을 누른다.

ЦТВС набирает детей в четыре бесплатные секции

Спортивная школа по техничес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ЦТВС) открывает запись в спортивные секции по следующим видам спорта:

- авиамодельный спорт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10-12 лет),
- конный спорт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10-12 лет),
- мотоциклетный спорт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9-11 лет),
- практическая стрельба (мальчики и девочки 11-13 лет).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с 16 ноября по 17 декабря на сайте учреждения цтвс.рф в разделе "Спорт".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5-80-25 (доб. 105, 110), сообщили в ЦТВС.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 지역 단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

2020-2021년 학기 전 러시아 학생 올림피아드의 지역 단계가 유즈노사할린스크 27개 일반 교육기관에서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7학년-11학년생으로 학교 내 올림피아드의 우승자와 수상자들이다. 지역 올림피아드 주 후원은 '엑손' 석유가스 유한회사다.

이들은 우승을 두고 한 달간 22개 과목 - 천문학, 지리, 화학, 생태학, 법학, 정보학, 러시아어, 문학,영어, 화학, 수학, 역사, 사회학, 생물학, 경제학, 체육, 세계 예술, 기술, 생활안전,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에서 지식을 겨룬다.

지역 올림피아드 총결과는 2020년12월 말에 발표되며 대회 우승자와 수상자는 2021년 전국 학생 올림피아드 대회에 유즈노사할린스크팀으로 구성돼 출전한다고 시청 홍보부가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артовал муницип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Муниципальны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2020-2021 учебного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в 27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никами интеллектуальных состязаний выступают ученики 7-11-х классов —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школьного этапа олимпиады. Главным партнером олимпиады является компания "Эксон Нефтегаз Лимитед".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они будут бороться за звание сильнейшего и продемонстрируют свои знания по 22 учебным предметам: астрономии, географии, химии, экологии, праву, информатике,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литературе, английскому языку, физике, математике, истории, обществознанию, биологии, экономике,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кусству (миров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е), основ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технологии, китайскому, немецкому и французскому языкам.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этапа состоится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выступят в составе команд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в январе 2021 го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사할린동포들은 일본 언론인, 사진작가인 카타야마 미츠오 씨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사할린의 여러 박물관에서 개인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주미술박물관에 일본인형 컬렉션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사할린한인을 취재했다. 이번에는 그는 사할린 지인들을 통해 일반인 일본여성을 도우려고 한다.

<가-라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들은 알고 있는가? 75년 전에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 그리고 사할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한 일본인 소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은 전쟁의 비참함과 이웃의 따뜻함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75년 전에 일어난 전쟁의 일면을 접할 수가 있었다.

소녀는 당시 카라후토의 시스카(현재 사할린의 포로나이스크)에서 태어났으며, 그 곳에서 전쟁을 겪었다. 물론 아이니까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련(현재 러시아) 국경가까이의 인구 2만 2천 명 이상의 큰 도시였던 시스카에 살고 있던 소녀의 눈에 전쟁은 비참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오-지 세이시(왕자제지) 사원이었던 소녀의 가족은 시스카의 오-지 세이시의 사택에 살고 있었다. 인간이 인간임을 잊게 되는 혼란 속의 카라후토에서 소녀가 소련 군인들의 침략을 경험하면서도 따뜻한 인간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웃이 있어서였다.

소련 군인들이 거의 나가고 그들 대신 러

시아 일반 국민들이 카라후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지 세이시 사택에 러시아 소녀가 가족과 함께 이사를 왔다. 비슷한 나이의 두 소녀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물론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간의 전쟁이라는 비참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또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생활 속에도 그들 소녀는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일본인 소녀의 이름은 '사이토 노리코', 그리고 러시아 소녀의 이름은 '가-라'라고 한다. 가-라는 노리코 보다 한 살 어렸다. 노리코는 일본 학교에, 가-라는 러시아 학교에 다녔다. 매일 매일 두 소녀는 함께 놀았다.

2년 정도 흐른 뒤 노리코는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반가운 마음 한편으론 가-라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슬펐다. 노리코는 소중한 여기던 일본 인형을 가-라에게 선물했다. 노리코 주머니에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설



탕과자 주머니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화물차를 타고 포로나이스크를 출발한 지 한참이 지난 후였다. 가-라 어머니의 진심어



린 선물이었다.

전쟁이 끝난 지 75년, 노리코가 가-라와 헤어진 지 73년. 지금 노리코는 82세로 일본 아키타현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 노리코는 오늘날도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다. 가-라와 다시 만나는 그날을 꿈꾸면서.

가-라를 아는 사람 누가 없습니까?

*사이토 노리코 씨는 2020년 8월 작은 책을 출판했다. 제목은 <가-라를 만나고 싶어요>. 카라후토에서의 생활을 담은 책이다.

미치오 카타야마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
--	--	---	--	--	---